**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복음
강의 4A – 마태복음 6-7장: 기도, 걱정, 그리고 다른 문제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마태복음 4A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마태복음 6장과 7장의 핵심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살펴보면, 17페이지에 있는 보충 자료 개요를 보면 약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에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18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짜 종교와 진짜 종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8쪽에서, 우리는 이 구절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기독교 유대인 공동체에 기본적인 세 가지 종교적 의무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시는 부분입니다. 6장 1절에 제시된 일반 원칙들, 그리고 6장 2-4절에 제시된 구제(또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 6장 5-15절에 제시된 기도, 그리고 6장 16-18절에 제시된 금식의 원칙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들 중 하나를 다룰 때마다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18쪽에서 예수님은 먼저 위선적인 종교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그릇된 동기를 가진 허세 부리는 행위를 금하시고, 진정한 종교가 명령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그런 종교는 상을 받는다고 엄숙하게 단언하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직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은밀히 행해져야 하며, 아버지는 때가 되면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대한 분석은 매우 흥미롭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신 후 종교 활동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다루시는 구조는 상당히 반복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5장 48절에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의로운 성품을 본받고, 5장 20절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보다 더 큰 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제시된 일반적인 원칙은 의와 제자들의 의도를 연결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행하는 종교적 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행하는 행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교적 행위와 그 대상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거룩함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제자의 성품은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며, 제자의 행위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이는 과시주의와 과시로 특징지어지는 서구 문화의 흐름과는 분명히 상반됩니다 . 세상의 슬로건은 "있다면 과시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슬로건은 예수 시대의 회당에 그랬듯이 교회에도 확실히 침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순히 옳은 일을 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옳은 방식으로 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팔을 불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곤 합니다.

분명 이것은 이 구절의 핵심 원칙을 어기는 것이며, 마가복음 12장 41-44절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에 대한 교훈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웅변과 길이는 종종 효과와 혼동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꺼리시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금식에 관해서는, 우리는 금식을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의무를 초월한다고 생각하는 유사한 종교적 행위들은 종종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8절에 언급된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오늘날 군중의 덧없는 박수갈채를 얻는 것은 내일과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잃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제자들은 영원한 관점에서 군중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눈에 띄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보 효과를 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진정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정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으며, 신의 인정을 잃는 것입니다. 1915년에 출판된 옛 주석가 플러머의 저서 91쪽을 참조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할애할 수는 없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은 사실 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무심코 미신적으로 반복할 주문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경건한 왕국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6장 9절과 10절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가 형성되는 우선순위인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도의 대상인 그분은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능 장애 가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오늘날,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은혜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에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가까이할 수 없는 영광으로 자녀들과 멀리 계시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은 우리를 친밀함과 공동체로 이끕니다. 그분은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아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채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제자들에게 속합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은 제자들을 경외심과 경건함으로 그분께 다가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함과 위대함, 은혜와 권능, 절박함과 초월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키시는 분으로서 최고의 존경을 받으실 만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감상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한 무관심을 피하기 위해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가 형성되는 우선순위와 관련하여(6:9, 10), 우리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봉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대의를 옹호하거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소망을 채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장보기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두르며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명성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와 통치를 확장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간구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간구입니다.

각 사람은 하늘에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불타는 열망으로 자격을 갖춥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때, 우리는 이미 그 우선순위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날을 점점 더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성장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며, 제자들의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을 떠나 영적인 천상의 존재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늘의 권익을 추구하듯,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구체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15절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6장 11-13절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문제들과 6장 14-15절에서 그들의 기도를 지배하는 원칙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13절에서 그들은 매일의 양식, 용서, 그리고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임을 스스로에게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합니다(마 6:14-15).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이는 삶의 사치보다는 필수품을 상징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일꾼들이 일당을 받았습니다.

20장 8절을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제자들은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받고, 6장 34절에서는 내일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받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일에 대해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훌륭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가난과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인정하며(마태복음 5장 3절과 6절),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자신의 윤리적 오류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용서를 받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베푸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자주 자신을 괴롭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세상과 육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은 죄로 이어지고, 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고 악한 자의 계략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전략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기도할 때, 그들의 간구는 한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간구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동일한 원리에 근거하는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였느니라"(6:12, 6:14, 6:15)와 같은 원리에 근거합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5장 23절과 24절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웃과의 화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화해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화해를 위해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장 21-35절의 비유를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은 야베스와 윌킨슨 형제의 책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책의 가치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모범적인 기도를 고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모범적인 기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6장 19절과 34절로 넘어가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석해 보면, 이 구절에는 불안과 물질주의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으라는 계명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6:19-24)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불안(6:25-34)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6:22-23인데,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맥과 연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마태복음 6:19-34는 설교의 앞부분만큼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요소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 기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6장 19절, 25절, 31절, 34절 상반절처럼 물질주의적인 활동과 불안한 생각을 금합니다. 둘째,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에서 왕국의 우선순위를 갖도록 권면합니다(6장 20절, 33절).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동기, 진술, 잠언, 수사적 질문(21-24절, 26-30절, 32절, 그리고 34절 후반부)입니다.

6:19-34은 제자들의 기도 중 인간의 필요, 특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과 매우 분명하게 연결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금지, 권면, 그리고 동기 부여라는 세 가지 유형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반복적인 방식으로 서로 엮여 있습니다.

물질적인 추구 대신, 우리는 걱정의 무익함과 아버지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구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문제를 다루십니다. 1-18절에서는 종교적 위선에 대해, 19-34절에서는 물질주의에 대한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장의 전반부는 종교적 의무를 올바르게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후반부는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 올바른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이 장의 두 부분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요구합니다. 데이비스와 앨리슨은 그들의 주석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계속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6장 1-18절은 군중의 박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상을 위해 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먼저 표출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한 염려를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9-3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새와 꽃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았던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이교도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을 먼저 구하길 바라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기도와 생각과 활동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미성숙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기준에 대한 충성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치 부수적인 혜택처럼 먹고 입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와 활동에서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아버지의 돌보심과 공급하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자 캐롤라이나 버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아, 안전하게 그 품으로 모이리로다. 새 새끼도, 하늘의 별도, 그런 피난처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네." 6장 19-34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 가사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7장 1-6절의 첫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7장 1-5절은 판단주의, 즉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검열하는 태도를 주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너는 1999년에 출간된 그의 주석 240쪽에서 판단주의에 대한 이러한 금지가 6장 12-15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명령과 관련이 있다고 적절하게 지적합니다. 7장 1-6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 상반된 극단을 보여줍니다.

첫째, 7장 1-5절에는 판단주의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이는 7장 1절의 초기 금지 사항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7장 2절의 신학적 동기와 7장 3-5절의 익살스럽고 과장된 비유로 뒷받침됩니다. 이어서 판단주의의 반대 개념인 속기 쉬움에 대한 간략한 경고가 나옵니다. 7장 6절에서 이 경고는 카이아스무스(chiasmus) 또는 내향적 병행법의 문학적 형태를 띱니다. 즉, 돼지가 진주를 짓밟을 것이고, 개들이 돌아서서 당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의 핵심은 위선적인 판단주의와 진정한 분별력의 대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잘못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라는 모호한 구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제 상대주의와 주관성을 강조하고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도덕적 절대성의 존재를 부정했던 사람들에게 정교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문맥에 따라 '판단하다'와 '심판하다'라는 단어는 분석과 평가, 혹은 정죄와 처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필연적으로 개인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 있는 판단을 요구합니다. 많은 구절들이 이를 시사합니다.

3:7, 5:20, 6:24, 7:6, 10:13, 그리고 이어지는 13:51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판단을 여러 번 하십니다. 4:10, 6:2, 5, 7:21~23, 8:10~12, 13:10~13, 그리고 15:14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허락하시는 것을 여기서는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예시하기도 하십니다.

무엇을 금하시는 겁니까? 바로,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남을 혹평하는 엄격하고 비판적인 판단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격한 기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하 12장 1-15절에서 이 교훈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자기 성찰이 명확한 분별력과 공정한 도덕적 판단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보복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는 눈으로'를 요구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33-48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판적인 심문관(7:1-5)이나 순진한 얼간이(7:6)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악하게 거부하고 계속해서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험한 원수로 여겨져야 하며, 그들의 악한 행동은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에서 이를 예시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 눈에서 들보를 빼내지 않는 한, 비교적 사소한 문제를 가진 동료 신자와 하나님 나라에 큰 해를 끼칠 원수를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는 위선이나 순진한 속기 쉬운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만해지기 쉽고, 결국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7장 7-11절의 은혜롭고 긍정적인 어조가 이전의 많은 금지 사항들과는 상반되는 환영할 만한 변화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명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왕국의 표준은 높지만, 제자들은 그 표준을 추구하는 데 있어 격려받거나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인간 부모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며, 그분은 당신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성적 이미지와 관련된 유사한 주장이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7-12절을 살펴보면, 이 구절들은 7장 11절에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7장 7절에서 "구하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구절과 함께, 포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해그너는 7장 7-11절이 표면적으로는 기도에 관한 것이며, 앞이나 뒤의 맥락과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 옳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라는 공통된 주제에서 연관성을 찾으려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구절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관대함으로 분별력 있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설명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명확하지 않으며, 7장 7-11절을 앞선 맥락과 연결 짓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7-11절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장 7-11절은 6장 9-13절의 모범 기도에 대한 일종의 덧붙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행해진다는 진리를 바탕으로 합니다(6장 4절, 6절, 18절). 하나님은 은밀히 행해지는 모든 일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6장 8절과 32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입니다.

따라서 7장 7-11절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선하심의 깊이에서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7:11).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유혹을 종종 받습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며, 6장 8절과 6장 32절에서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7장 7-8절은 응답이 반드시 올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을 때조차도 응답이 좋을 것이라고는 의심할 수 있지만, 7장 9-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으십니다. 악의도 없으시고, 악행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시련 속에서 매일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세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27절은 설교의 결론으로, 13-14절, 15-20절, 21-23절, 24-27절의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23절에 나오는 심판은 7장 15-20절의 비유적 언어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을 다룬 7장 15-20절은 7장 21-23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연결되어 있으며, 7장 13-27절에는 세 부분만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세 가지 은유의 형태로 설교에 대한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을 제시하는 엄중한 경고를 구성합니다. 대조적인 반응은 두 문 중 하나를 택하는 것, 두 나무 중 하나의 열매를 취하는 것, 그리고 두 집을 다른 기초 위에 짓는 것에 비유됩니다.

19페이지에 이 자료의 윤리적 이원론을 보여주는 도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도표는 여러분에게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 이원론을 제시합니다.

요점은 바로 그거예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중간 지점은 없어요.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문이나 길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따라가다가 문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본문에 나오는 용어들의 순서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꼭 답할 필요는 없지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 성벽을 상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넓은 문은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반율법주의의 길은 매끄럽지만, 갑자기 마치 예고도 없이 다리가 무너진 것처럼 지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유를 약속하는 듯했던 넓은 길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즉 멸망으로 끝납니다. 반면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어려운 발걸음을 내딛을 때, 제자의 길은 매우 험난할 수 있지만, 갑자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파괴하려던 험난한 길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유로 끝났습니다. 이 두 문과 길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쉬운 길을 택하지만, 그 길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목적지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어려운 길을 택하는 자들은 가장 좋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아버지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나무. 7장 15-23절에서 두 종류의 열매와 두 종류의 나무를 명확히 구분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은 어떤 집단에서는 종종 모호하게 이해되는 듯합니다. 때때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엄연한 구원론적 이원론을 값싼 은혜 사상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넓은 길에서 호사스럽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제자로서의 험난한 여정을 거친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7장 15절 이하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주권과 구원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열매의 은유가 올바른 삶의 방식만이 제자도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흔히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의 성구 색인을 찾아 열매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율법주의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내용을 덧붙여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반율법주의로 희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이 자주 등장하는 바울조차도 로마서 2장 13절, 3장 8절, 8장 25절, 11장 22절, 13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에베소서 2장 10절과 4장 17절, 골로새서 1장 23절, 디도서 2장 7절 이하에서 선행을 꾸준히 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임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5-23절에 나오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초점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일 뿐만 아니라 양으로 가장하는 늑대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장은 매우 기만적입니다. 늑대들은 예언, 귀신 쫓아내기, 기적 등 양과 같은 행위까지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주권을 입에 담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상황은 암울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양으로 위장한 이 늑대들은 열매로 묘사된 그들의 행위가 설교의 기준에 따라 검토될 때 그 가면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윤리적 활동이 여기에 설명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 밝혀지고 폭로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눈부신 은사주의적 업적은 차치하고라도, 마태복음 24장 23-28절과 신명기 13장 1-5절을 비교해 보면, 그들의 사역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회개하는 생명의 길에서 지옥으로 향하는 도덕률 폐기의 길로 이끌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덕률 폐기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 경고를 마태가 선지자와 은사주의적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좀 어울리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도 선지자들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예인 세 번째 경고는 두 명의 건축자 또는 두 개의 기초를 대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27절에서 제자도를 집을 짓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며, 신명기 28장 15-30절, 잠언 10장 25절, 특히 에스겔 13장 8절 이하처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엉터리 기술과 질 낮은 자재로 인한 주택 문제, 특히 극심한 날씨에 드러나는 문제들을 흔히 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튼튼한 집을 짓는 현명한 건축자와 허름한 집을 짓는 어리석은 구두장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차이는 스승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지혜로운 제자들의 순종적인 행동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주하는 듣는 이들의 무기력함입니다. 전자는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짓는 반면, 후자는 모래 위에 파멸할 운명의 건물을 짓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분명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처음 들었던 고대의 무리도, 마태복음 5-7장에서 그 요점을 접하는 현대의 독자도 감히 변함없이 안주하며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폭풍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며, 지옥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경고에 귀 기울이고, 폭풍을 헤쳐 나가며, 천국에 들어가 생명을 찾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7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놀라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하신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